

영어 모음 발음의 이론과 실제

양 병 곤

(동의대학교)

Yang, Byung-Gon. (1997). Theory and practice on English vowel sounds.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7, 127-13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English vowel sounds to learners and teachers of English. Many students and teachers have difficulty producing correct English vowels and perceiving them, which leads to awkward situation with foreigners. To correct and improve English pronunciation, they should understand how English and Korean vowels are produced theoretically and practice them.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English vowel productions using primary Korean vowels based on the principle of vowel production. Also, some physical aids were proposed to facilitate elementary pupils to produce the vowels easily. Once those learners can produce the vowels correctly and perceive the subtle difference of the two vowel systems, they can communicate freely with English speakers in the world.

I. 머릿말

오늘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우리의 영어학습의욕은 그 어느 때 보다 왕성하다. 지금은 국제화의 물결 속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것을 외국에 펼쳐야 하는 상호교류의 장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영어 발음은 여전히 어려워서 포기하거나 우리의 발음을 그대로 영어에 적용하여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원어민의 발음을 제대로 구분해 듣지 못하는 학습자가 의외로 많음을 발견한다. 영어를 수단으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해야하는 데 발음에 문제가 있어서 대화를 포기하거나 오해를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행히 우리의 조음기관은 다양한 음을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

금만 그 원리를 염두에 두고 교정하여 발음하면 외국의 원어민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발음을 할 수 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이민을 간 재미동포 2세의 발음을 원어민과 비교해 보면 전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완벽히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의 발음연습의 목표는 원어민과 똑같이 발음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선명히 외국인에게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또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받아들이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발음할 때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히 하고 듣는 연습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낸 발음들을 귀로 들어 구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파키스탄 필리핀 등지에서 들어온 노동자의 수만 해도 20만을 헤아린다. 노동문제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인들만의 공간은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들과의 의사소통에는 영어가 필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하는 영어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귀의 훈련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발음을 갖춰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유창하고 빠른 발음보다는 분명히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또렷한 발음으로 무장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분절음 가운데 가장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영어 모음 발음의 이론적인 배경과 이를 실제 발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일반 학습자나 교사들의 가르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논문 구성으로는 먼저, 발성에 대한 조음학적인 측면에서 모음 발성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시킴으로써 보다 정확한 발음 교정을 위한 기초지식을 제시하고 국어와 영어의 음향적 실험 결과를 응용하여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국어와 비교하여 발음할 때 문제가 되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기로 한다.

II. 모음 발음의 이론

정확한 발음을 내는데는 발성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소한이라도 해부적인 구조와 운동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쉽게 국어발음습관으로 인해 굳어진 발음습관을 고칠 수 있다. 조음기관에 대한 자료는 예전부터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거울을 이용하여 관찰하기도 하고 x-선 촬영이나 후두내시경 등을 통해 발성시의 움직임에 대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최근에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방식에 의해 피험자에게 전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신체구조에 대한 다양한 영상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영상에서 공명하는 구강의 모양만을 분리시켜서 조음구조

를 연구하고 있으며, 또한 조음과정을 영화처럼 연속으로 재생하여 실제 발음 과정에 대해 많은 정보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정중단면(midsagittal)은 실제로 혀의 움직임이나 입벌림 정도에 따른 구강이나 인강의 공간을 세밀하게 나타내 주기 때문에 발음 연습을 하는 학습자에게는 매우 중요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람의 조음기관과 동작 방향을 단순히 나타내 보면 그림 1과 같다.

사람의 목소리는 폐를 받치고 있는 횡경막에 의해 허파를 밀어올리고 가슴의 흉곽으로 압축을 하여 압축된 공기를 기관을 통해 성대를 떨리게 한다(고도홍 외 1993; 양병곤 1994). 성대는 보리피리의 끝부분을 얇게 접질을 벗기고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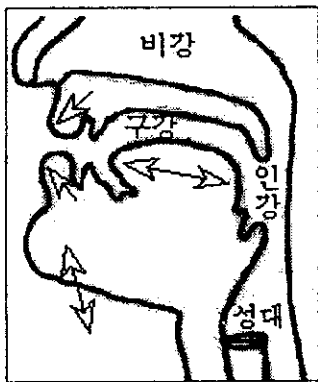


그림 1. 사람의 조음기관

0.5mm간격을 두고 그 사이에 입으로 바람을 불면 떨리는 것과 같다. 이 떨림은 보리피리의 긴 원통을 울려서 소리가 보다 크게 울린다. 이 원통의 크기나 길이에 따라 소리의 울림이 달라지듯이 인강과 구강의 크기가 변하여 다양한 소리의 조합을 만든다. 이러한 원음은 인강과 구강 비강과 같은 울림통을 지나게 된다. 인강과 구강은 혀와 턱을 이용해 그 크기를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원하는 모음을 만든다. 혀는 전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매우 탄성적인 조음기관이다. 혀를 통제하는 근육은 모두 아래턱에 연결되어 있

어서, 턱을 움직이면 혀도 따라 내려오게 된다. 발음을 교정할 때 혀의 높이를 변화시켜 서로 다른 음질의 모음을 듣고 싶을 때는 혀 끝을 아랫니의 잇몸까지 내려서 고정하고 턱을 움직여 발음해 보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다. 입술은 앞으로 내밀어 둥글게 하여 원순모음 /우, 오/ 등의 발음에 사용된다.

먼저 영어 모음 가운데 /i/, /a/와 /u/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그림 2에서 보듯이, 모음 /i/는 혀의 전반부가 입천장 쪽으로 높이 올라간 모양으로 구강의 공간은 매우 좁은 반면 혀의 후반부는 넓어지게 된다. 혀의 체적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풍선을 한 쪽에서 밀면 타원형으로 찌그러지면서 밀려가듯이 혀의 전반부를 올리게 되면 후반부에 머물러 있던 부분이 당겨오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한 쪽만 조정하면 다른 쪽은 자동적으로 변형되어 여러 가지 모음이 생성된다. 모음 /i/를 단순한 피리로 비유한다면 구강의 좁은 공간에 해당하는 작은 피리와 인강의 넓은 공간에 해당하는 크기의 큰 피리를 두 개 연결하여 동시에 부는 것과 같다.



그림 2. 모음 /i/, /a/와 /u/의 정중단면도와 구강 및 인강에 형성된 공간

이와는 반대로 모음 /a/의 경우는 턱을 내리고 입을 벌리게 되므로 구강의 전반부는 매우 넓게 되고 인강부분은 혀의 체적이 옮겨와서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된다. 이 때 윗입술과 아랫입술 사이의 간격은 모음 /i/에서는 약 1cm가 채 못되었지만 모음 /a/에서는 약 3cm정도로 넓어지게 된다. 모음 /u/의 발음은 혀의 후반부를 연구개 가까이 접근시키면서 그 반작용으로 입술을 둥글게 하여 내민 상태로 발음한다. 전체적으로는 입술이 1cm정도 나오게 되어 피리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를 주고 낮고 어두운 인상을 준다.

지금까지 기본모음의 발음구조에서 살펴보았듯이 모음은 주로 혀와 턱의 움직임으로 단순하게 규명할 수 있다. 또한 혀는 체적이 거의 변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구강이나 인강의 어느 쪽으로 쏠리게 하는가에 따라 다른 모양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각각의 다른 모음을 만든다. 이 때 혀의 가장 높은 부분과 입천장 사이에 생긴 좁혀진 지점을 표시하여 연결하면 흔히 말하는 영어의 모음 사각도가 된다.

III. 영어와 국어의 모음

영어 모음을 정확히 발성하려면 영어와 국어의 모음 구조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발성할 때 입모양이 거의 변하지 않는 영어 단모음으로는 /i:, a, u:, o:, ɔ:, ə, ʌ, ʊ, ε, ʌ, æ/ 와 다양한 이중모음이 있고 국어에는 이에 상응하는 단모음 /아, 어, 오, 우, 으, 이, 에, 애/ 등이 있다. 우리는 흔히 영어 발음을 국어발음에 유사한 음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떤 영어 모음이 국어에 있거나 없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왜 나의 발음이 외국인과 다르게 발음되는지 또 그 다른 발음을 들을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짧은 시간에 발음 교정을

할 수 있다. 특히, 모음은 혀의 앞뒤 이동과 턱의 아래위 움직임에 따라 구강과 인강의 공간이 달라지면서 다른 모음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발음의 교정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다 단순화된 영어의 모음사각도에 국어의 기준이 되는 모음을 그림 3과 같이 표시하여 이를 대조적으로 다루면서 정확한 발음을 내는 방법을 찾아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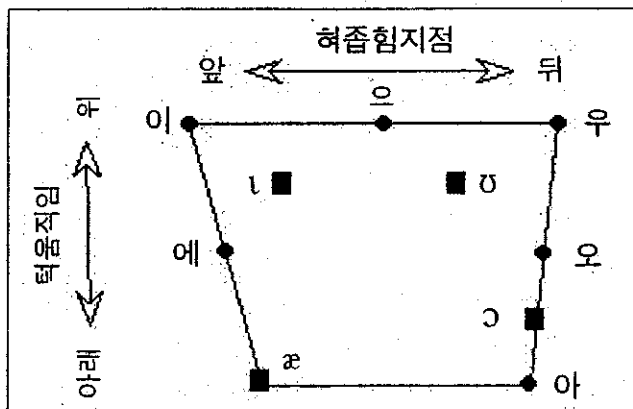


그림 3. 국어와 영어와 국어 모음의 혀의 조임점 위치 대조

(■은 영어의 모음 위치를 나타내며 ●는 국어의 모음 위치를 나타낸다.)

그림3에서 살펴보면 영어와 국어의 모음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i, u, æ, ɔ/이며 이것들은 실제 우리가 학습하기에 가장 어려운 모음들이다. 그러면, 이러한 모음들은 어떻게 발음할 수 있는가? 앞서의 모음 발성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쉽게 교정하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실제 모음 사각도의 상하 움직임은 바로 턱의 오르내림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혀의 앞부분을 입천장에 가까이 접근시켜 /이/하고 발음한 뒤 그 모양에서 턱을 조금 내려서 목청을 떨어보면 /에/로 바뀐다. 마찬가지로 혀 뒷쪽을 내려보면 /우/에서 /오/를 거쳐 /아/로 음이 바뀔을 들을 수 있다. 덧붙여, 모음 삼각도의 전후 변화는 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으/-/우/의 순서로 발음해 보면 턱의 높이는 그대로 유지되고 혀의 앞부분에서 중간을 거쳐 뒷부분을 입천장쪽으로 가까이 하여 발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순한 원리를 응용하여 국어 모음사이에 하나 더 모음위치를 확보하거나 더 연장해 발음하면 우리말에 없는 이완모음 /i, u/나 /æ, ɔ/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음 사

각도에서 이들 각각의 모음을 중심으로 인접한 국어모음과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바르게 발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Yang 1992:1996b).

/ɪ/

주로 강세가 주어진 경우에 나타나는 영어의 /i:/ 발음은 국어 모음 /이/와 거의 비슷하나 너무 과도하게 턱을 올리고 혀를 입천장에 근접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반면, 긴장을 풀고 가볍게 발음하는 이완모음에 해당하는 /ɪ/는 우리말 /이/에 비해 입을 더 벌리고 발음하며 /에/에 거의 가깝게 들리기도 한다. 이 두개의 음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음이라는 것이 음성합성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1920년대 당시에는 길이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밖에 없어서 긴장모음의 발음이 근육의 긴장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더 길게 발음됨을 밝히고 음질의 차이는 포착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음질의 차이를 합성을 통해 들려주었을 때 원어민들은 다른 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최신의 영어사전에는 /i:/와 /ɪ/로 표시하여 길이 차이와 음질차이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음은 음질과 길이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말에서는 긴장모음 /이/ 하나로 나타나 있어서 그 차이를 지각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발음하고 있는데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 발음은 우리말 /아이/에서 /아/를 음계의 솔음에 가깝게 강하고 길게 발음한 뒤 재빨리 이어서 도음에 가깝게 /이/라고 짧게 발음했을 때의 입을 다물다가 만 위치의 소리를 낸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거울을 보면서 /이/ 모양의 입모습을 만든 뒤 턱을 조금 더 내려 입을 더 벌려서 발음한다.

/u/

영어의 /u:/는 우리말에서처럼 혀를 뒤로 많이 당기지 않는다. 이것은 영어의 고모음이 두 개인 반면 국어에서는 /이 으 우/의 세 개가 있기때문에 그만큼 청각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혀의 후반부를 올려서 발음한다고 생각된다. 영어권의 화자들은 우리말 /으/와 /우/ 발음영역에서 어디서든 발음되더라도 /u/로 판단하게 된다. 영어에서는 혀의 앞뒤를 입천장에 접근한 위치에서 /이/와 /우/라는 두 개의 변별적인 발음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벗어나면 모든 음이 /u/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

의 good이 /근/에 가깝게 들리게 된다. 다시 말해서, 따라오는 자음 /d/를 발음하는 모양에서 혀 끝이 잇몸을 닿게 하기 때문에 /u/가 앞으로 당겨진 국어의 /으/위치를 향해 이동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cook과 같은 단어에서는 k에 영향을 받아서 /우/와 마찬가지로 입술을 둥글게 하고 혀의 뒤쪽이 들려진 상태에서 발음될 것이다. 이에 반해, 이완모음에 해당하는 /o/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i e/사이의 이완모음 /r/와 같은 경우로써 우리말 /우/와 /오/의 중간위치에서 긴장하지 않고 가볍게 발음한다.

/æ/

혀의 앞부분을 침샘부위에 붙이고 턱을 많이 벌려 발음하는 /æ/는 우리말 /에/보다 훨씬 턱을 많이 내려야 한다. 턱을 내리면서 혀의 앞부분을 이용하는 우리말 모음은 /이, 에, 애/가 있으나 부산방언에서는 /에, 애/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에/ 하나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말씨를 쓰는 젊은 세대에서도 이 구분을 별로 하지 않으며 주로 문맥에 의해 판단한다. 반면, 영어에서는 혀의 앞부분을 내려 입을 벌리면서 네 개 모음 (i, u, e, æ)을 구분하여 발음한다. 따라서, 영어를 공부하는 한국인들은 영어의 /æ/ 발음에서 뚜렷한 음질의 차이를 보이게 되며 또한 청각적으로도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의 발음에서는 턱을 내리고 입을 많이 벌려서 혀끝을 아랫니의 잇몸 안쪽에 바짝 붙인채 발음한다. 심지어 목안쪽에 있는 목젓까지 보일 정도로 입을 벌린다. 이에 비해, 우리는 입을 별로 벌리지 않고 /e/로 발음하므로 외국인이 bad를 bed로 들을 확률이 높다. 이 발음을 정확히 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거울을 보고 /에/를 발음한 뒤, 그 모양에서 턱을 조금 더 내리고 입을 벌려서 발음한다. 이 때, 발성된 모음 /e/를 들어서 우리말 /에/와 음질이 다르다는 것을 자기 귀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음질의 차이를 귀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영어의 /æ/음을 자연스럽게 귀로 들으면서 조절할 수 있다.

/ɔ/

이 발음은 우리말 /오/와 /아/ 사이에서 나는 발음이다. 입술의 둥근정도는 /오/보다는 넓게 펼치고 /아/보다는 좁고 둥글게 해야 한다. 이 발음의 입천장과 혀 중반부의 폭은 /아/만큼 벌려서 발음하는 것이 좋다. 발음교정은 우리말

/아/를 발음하게 한 뒤 그 만큼 벌린 입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입술만 약간 오므려서 둥글게 하여 발음하거나 그 반대로 /오/ 발음을 한 뒤 입을 더 벌리고 낸다. 청각적으로는 두 가지 모음의 인상이 모두 들리도록 발음한다.

지금까지의 단모음 발음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발음하는 공간보다도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림 4와 같이 교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필이나 OHP용지와 같은 투명지로 만든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연필을 네 개 준비하여 각각에 해당모음을 표시하고 이것을 입으로 물어서 그 간격을 정한 뒤에 발음하는 과정을 되풀이 한다. 예를 들어, 연필 한 개의 폭일 때는 /i/로 네 개일 때는 /æ/로 발음된다. 또는 투명지에 입의 크기를 적절히 나누어 그린 뒤 이것을 입술에 대어 거울을 보면서 이것과 같은 크기로 벌려서 발음해 본다. 일단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발음한 음에 대해 귀로 구분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이 도구는 필요없게 된다. 본인이 귀로 들으며 그런 음질이 될 때까지 항상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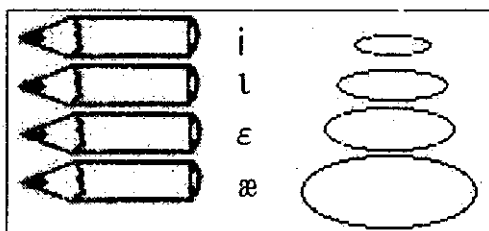


그림 4. 보조도구를 이용한 모음 교정방법

아울러 한가지 모음 동작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면 이를 극복하려는 과잉 노력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입 안에 연필을 문 상태로 턱을 올리거나 내리지 못하게 한 뒤 발음을 시키면 고모음인 /이, 우/는 거의 입을 움직이지 않고 발음하지만 /에, 오, 아/로 갈수록 혀의 앞부분을 긴장하고 아랫니 옆의 침샘부분에 꼭 누르고 혀를 옆으로 펼쳐서 최대한 발음 공간을 확보하여 청각적으로 비슷한 발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교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는 혀를 아랫니에 밀착해야 한다.

덧붙여 이러한 혀의 움직임은 반드시 절대적인 거리 보다는 상대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범위를 유지하면 된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주위 상황에 상당히 영향을 받으며 조음 동작도 거기에 부응하여 항상 변한다. 예를 들어, 매우 조용한 장소에서는 조음기관을 별로 움직이지 않아도 발음이 각각 또렷이 구분되기 때문에 조음 동작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 반면, 매우 시끄러운 시장이나 파티장 같은 곳에서는 주위 잡음보다 더 높게 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음동작을 크게 해야된다(Lindblom 1990). 즉, 주위의 환경에 따라 말하는 사람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뚜렷이 들릴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

덧붙여 친구라든지 다루는 화제가 일정할 때는 그렇게 선명하게 발음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게 된다. 언어에는 상당한 부분이 중복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대화에서 몇 개의 문장을 듣지 못했더라도 대화의 진행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속담이나 신문 방송 등에 널리 알려진 표현들은 실제 비슷한 조음동작만 해도 이를 정확히 알아듣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 가운데 외양간을 왜양간 또는 웨양간, 더 나아가 에양간이라고 발음해도 청자들은 이것을 듣고 자기의 머리속에 들어있는 외양간이라는 소리로 추정하여 듣는다. 그러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과의 대화에서는 영어의 발음구조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렷이 발음하는 것이 좋다.

IV. 이중모음의 발음

이중모음이란 두 개의 다른 목표모음을 가지고 그 사이의 최단거리를 이동하면서 내는 모음이며, 그 종류에는 조음기관인 혀의 이동방향과 거리, 음향적 성분소 및 울림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양병곤 1993a : 1996a).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이중모음의 구조를 살펴보면 예서는 제 1요소(음절주음) 이 음량이 크고 강하며 길게 발음되고 제 2요소(음절부음)는 음량이 적고 약하고 짧게 발음하는 하강모음 구조가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aυ/의 경우 /a/에서 출발하여 /i/로 향하여 이동하다가 중간지점인 이완모음 /u/에서 멈춘다. 국어에서는 /je, ja, jə, ju/ 등의 영어와는 반대로 음절부음이 음절주음보다 더 강하고 길게 발음되는 상승모음이 많다. 따라서, 우리는 영어의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음절부음을 음절주음과 같은 크기와 길이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oυ/의 발음은 외래어 표기상 단모음으로 되어있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oυ/

이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입술을 내밀고 둥글게 만든 뒤, 입을 약간 다무는 동작이 반드시 첨가되어야 한다. 음절주음인 /a/를 아주 강하게 음계의 솔음에 해당할 정도로 높고 길게 발음하고 따라오는 음절부음인 /u/를 낮은 음도로 짧고 약하게 발음하면 된다. 예를 들어, bought와 boat의 구분은 앞 단어의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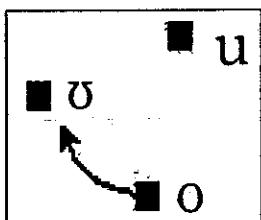


그림 5. 이중모음
/ou/의 발음 이동
모양

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단모음 /ɔ:/이나 뒷 단어의 모음은 이중모음으로써 입술이 움직이는 /o u/이다. 그림 5에서 처럼 살짝 움직이는 입술의 동작이 없으면 단모음으로 인식되므로 구분해서 발음하는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go를 '고'로 home을 '홈'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잘못된 발음이 습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을 교육 현장에서 바르게 고치려면 그 표기를 '고우'라고 크기를 달리하여 발음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물론 이 발음에서 유성음 /g/를 바르게 하도록 하

고 따라오는 이완모음 /u/는 우리말 /우/ 만큼 입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가볍게 입술을 둥글게 만들다가 마는 방식으로 발음하도록 지도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영어 단모음과 이중모음에 대해 발음 원리와 국어와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 보면서 발음 교정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영어와 국어의 차이를 가장 많이 보이는 모음으로는 이완모음 /ɪ u/가 있는데 이들은 이중모음의 음절부음이 독립된 하나의 모음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각각의 모음들은 부산에 사는 화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발음들이다. 다행히도 이들 모음 사이에 기준선이 되는 모음이 존재하므로 조음기관을 적절히 움직여 턱을 더 올리거나 조금 더 내림으로써 쉽게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낼 수 있다. 일단 발음이 정확히 구분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청각적으로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ɔ/모음에서도 이런 교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턱을 많이 내리고 발음하는 /æ/는 우리말 /에/보다 입을 더 벌려서 발음하여 교정할 수 있었다. 특히, 이중모음에서는 우리말에서 주로 단모음 /오/로 표기하는 /ou/가 문제가 되는데 가볍게 입술을 움직이는 동작을 첨가하여 교정할 수 있다. 앞으로 보다 선명한 모음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음성테이프를 듣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명하고 또렷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

- 고도홍, 구희산, 김기호, 양병곤 공역. (1993). 음성언어의 이해. 서울: 한신문화사.
- 양병곤. (1993a). 한국어 이중모음의 음향학적 연구. 부산: 진영문화사.
- 양병곤 역. (1993b). 음성학 입문. 부산: 진영문화사.
- 양병곤. (1994). 모음의 음향적 특성. 제1회 음성학학술대회 자료집. 대한음성학회. pp. 113-124.
- 양병곤. (1995). 합성한 한국어 단모음의 지각실험 연구. [언어] 20권 3호, pp. 127-146.
- 양병곤. (1996a). 합성한 한국어 이중모음의 지각실험 연구. [언어] 21권 3호, pp. 829-843.
- Lindblom, B. (1990). Explaining phonetic variation: a sketch of the H&H theory. *Speech production and speech modeling*. W.J. Hardcastle & A. Marchal, eds. pp. 403-439. Dordrecht: Kluwer.
- Yang, B. (1990). *Development of vowel normalization procedures: English and Korean*. Seoul: Hanshin.
- Yang, B. (1992). An acoustical study of Korean monophthongs. *Journal of Acoustical Society of Korea*, 91(4), pp. 2280-83.
- Yang, B. (1996b). A comparative study of English and Korean vowels produced by male and female speakers. *Journal of Phonetics*, 24(1), pp. 245-261.